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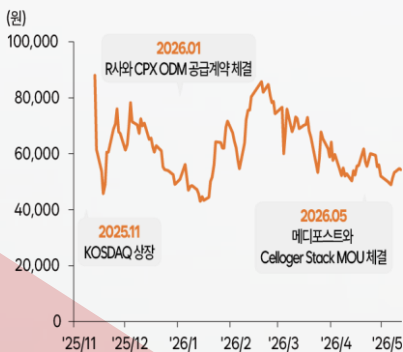
큐리오시스 (494120)

랩오토메이션, 그게 돈이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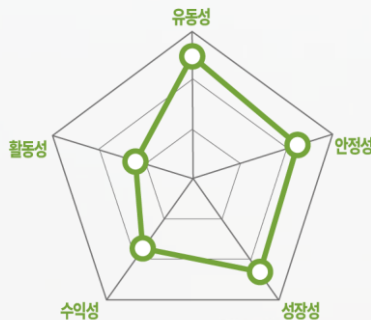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Celloger, CPX, Cellpuri, MSP로 이어지는 랩오토메이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 광학, 전장,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기술 내재화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와 ODM 사업을 병행
- Revvity향 Celloger M26 및 CPX ODM 계약은 동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생명과학 장비 밸류체인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레퍼런스로, 2026년부터 MOQ 기반 ODM 매출이 본격 반영되며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
- 2026년 매출액은 148억원(+102.7% YoY), 영업손실은 38억원으로 추정되며, ODM 매출 비중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외형 성장과 적자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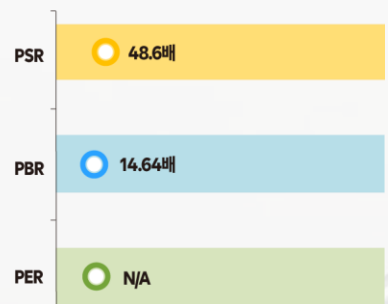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 PBR은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큐리오시스 (49412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이금민 km.lee@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랩오토메이션 장비 국산화를 선도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

동사는 바이오 연구 및 제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실험 단계를 자동화하는 랩오토메이션 장비 전문 기업. 2015년 설립 이후 광학, 전장,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등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Celloger, 자동 콜로니 피킹 시스템 CPX, 세포 농축&분리 시스템 Cellpuri, 디지털 병리 스캐너 MSP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옴. 주요 제품은 세포 배양 연구, 신약개발 스크리닝, 세포치료제 생산공정,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우드리 등 다양한 바이오 workflow에 적용 가능하며, 최근에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향 ODM 계약을 통해 랩오토메이션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

Celloger와 ODM 매출 본격화가 이끄는 성장 모멘텀

동사의 핵심 투자포인트는 Celloger의 제품군 확장과 글로벌 ODM 매출 본격화에 있음. Revvity향 Celloger M26 및 CPX ODM 계약이 MOQ 기반으로 체결되며, 202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향 매출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 이는 동사의 기술력이 단순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 및 유통망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레퍼런스. 향후 Revvity 외 신규 파트너 확보와 제품군별 ODM 확대가 확인될 경우, 동사의 성장성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2026년, 외형 성장과 적자 축소가 동시에 확인되는 해

2026년은 동사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확인되는 첫 해가 될 전망. 2026년 매출액은 148억원(+102.7% YoY)으로 전년 대비 큰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손실은 2025년 75억원에서 2026년 38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실적 개선의 핵심은 Celloger M series와 CPX의 Revvity향 ODM 물량 반영, Celloger Stack 등 신규 라인업 기여, 생명과학기 및 랩오토메이션 부문의 매출 확대에 기인. 특히 ODM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경우 고부가 장비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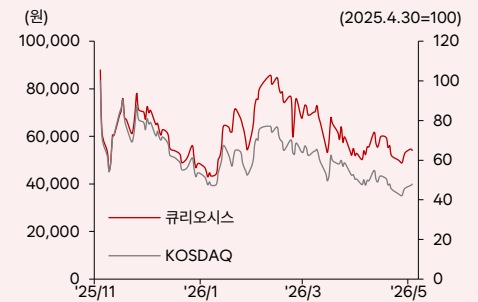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48	32	54	73	148
YoY(%)	N/A	-33.0	68.5	34.9	102.7
영업이익(억원)	-44	-66	-62	-75	-38
OP 마진(%)	-92.5	-204.0	-114.6	-103.1	-25.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9	-99	-48	-79	-36
EPS(원)	-2,664	-3,542	-1,287	-1,201	-470
YoY(%)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0.0	0.0	0.0	43.9	26.0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N/A	N/A	0.0	13.2	15.7
ROE(%)	36.3	51.4	100.5	-41.5	-13.6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5/14)	50600원
52주 최고가	88000원
52주 최저가	43000원
KOSDAQ (5/14)	1,191.09p
자본금	38억원
시가총액	3,85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5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01억원
외국인지분율	30.5%
주요주주	윤호영 외 12 인 22.6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3	-17.9	
상대주가	-11.7	-38.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인.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동사는 바이오 연구 및 제조
과정의 실험실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랩오토메이션 기업**

큐리오시스는 2015년 설립된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 실험실 자동화 제품 및 의료기기 등 랩오토메이션(Lab Automation)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독자적인 부품 및 장비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5년 11월 코스닥 특례상장에 성공했다.

동사는 생명공학 연구 및 임상실험 과정에서의 휴먼에러를 제거해 실험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험실 자동화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는 신약개발, CDMO, 학술연구, 오가노이드 등 바이오 관련 산업 전반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필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범용성을 가진다. 또한 10년간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핵심 원천기술 'CurioSystem'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천부품 및 장비 제작 기술을 내재화하여 부품과 완제품 모두를 공급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완성하였다. 또한 ODM 생산과 자체 브랜드 제품 생산을 병행하며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Live Cell Imaging 장비 'Celloger', Colony Picking 시스템 'CPX', 세포 농축 및 분리 시스템 'Cellpuri', 디지털 병리 스캐너 'MSP'가 있으며, 그 외에도 세포계수기 'Facscope', 'Quiric'과 마이크로니들 마용의료기기 're:H' 등의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

동사는 전장보드, 이미지센서, 광메카트로닉스 부품 등 바이오 장비 제작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100% 내재화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빠르게 제품 개발 및 양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사의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의 사이클은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바이오장비 평균 사이클이 2~3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적용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 및 해자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2월 CAPA 증설을 통해 제조라인을 15개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연간 제품 7,500개를 생산해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이다. 2025년 말 기준 가동률은 생명과학기기 65%, 의료기기 86%, 랩오토메이션 5%로 추가 매출 창출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금번의 증설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생산여력 확보를 위한 투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동사는 현재 제품화 및 양산 기술력과 CAPA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반을 다진 상태이며, 향후 신제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랩오토메이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글로벌 대형 바이오텍 Revvity Biomed와 2건의 중국향 OD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술력 검증 및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향후 ODM 사업에서도 본격적인 매출 확대 및 실적 기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혁

2015~2018	2019~2022	2023~
<p>2015. 01 법인 설립</p> <p>2016 미국 T사와 공동개발 CDA 벤처기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p> <p>20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계약체결 FACSOMA 출시 부천공장 개소</p> <p>2018 일본 Wakenbtech사와 공동연구개발 MOU FACSCOPE B 출시</p>	<p>2019 Celloger Mini 출시</p> <p>2020 용인공장 준공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p> <p>2021 Celloger Nano 출시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Celloger Mini Plus 출시 서울시 바이오 의료 기술사업화 사업 선정 신기술인증 NET 획득(Celpuri)</p> <p>2022 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사업 선정</p>	<p>2023 제2기업부설연구소 설립 MSP-320 품목허가 획득 및 출시 Celloger Pro 출시 Celloger Stack 출시</p> <p>2024 유럽 PHC사의 GMP용 인큐베이터와 Celloger 공동 프로모션 협약 체결 미국 R사와 전략적 제휴 및 MOU 2건 체결</p> <p>2025 CES 혁신상 수상(Celpuri, MSP-320 동시 수상) 미국 R사와 Celloger ODM 신제품 공급을 위한 협상 계약 체결</p> <p>2025. 11 코스닥 상장</p>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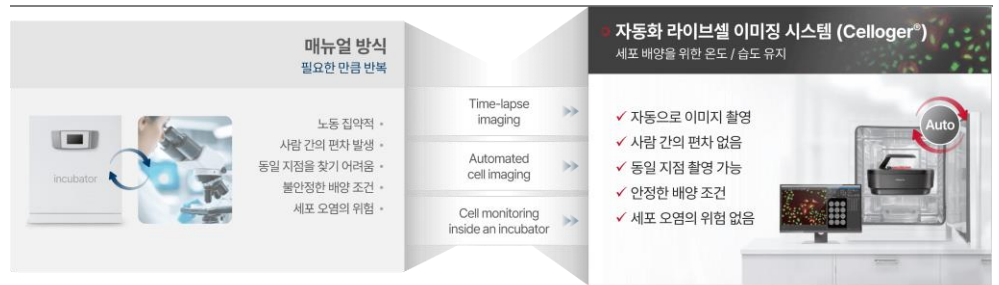
주요 사업

1. Celloger: 인큐베이터 내부 장기 관찰에 특화된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Celloger는 인큐베이터 내부의 안정적인 배양 환경을 유지한 채 살아있는 세포의 변화를 장기간&연속적으로 관찰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 동사의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Celloger는 동사의 대표적인 Live Cell Imaging 시스템으로, 세포 배양 과정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형태 변화, 증식, 이동, 사멸 및 약물 반응 등을 실시간 또는 시간 경과 기반으로 관찰, 기록, 분석하는 장비군이다. 일반적인 세포 관찰은 연구자가 일정 시간마다 배양기를 열고 세포 배양 용기를 꺼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 습도, CO₂농도 변화와 외부 오염 가능성, 물리적 흔들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배양이나 반복 관찰이 필요한 실험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실험 재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elloger는 이러한 수작업 기반 관찰 과정을 자동화해, 세포를 배양 환경에서 꺼내지 않고도 인큐베이터 내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적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Live Cell Imaging System



장기 세포배양과정 및 대규모 공정에 적용이 어려운 기존 방식의 한계 → **랩오토메이션형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Needs 급증**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elloger의 핵심은 인큐베이터 내부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포를 장기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고, 세포 배양 환경은 일반적으로 37°C, 높은 습도, 일정한 CO₂농도 등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미징 장비가 이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발열, 결로, 오염, 공간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Celloger는 저전력 및 저발열 설계를 기반으로 인큐베이터 내부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장시간 관찰 중에도 세포 배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가노이드, spheroid, 부유세포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샘플은 미세한 온도와 습도 변화나 물리적 자극에도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배양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연속적 관찰이 중요하다.

Live Cell Imaging에서 장비와 인큐베이터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 문제 해결

장비와 인큐베이터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condensation)문제

기존 이미지 센서 및 전장보드

결로 발생

- 높은 장비 전력소모로 인한 인큐베이터 온도 증가 → 37°C±0.1°C 유지 어려움
- 민감한 세포(primary cell, stem cell)의 배양 및 관찰이 어려움
- 결로 발생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오염으로 인해 빈번한 세포배양 실패 발생

큐리오시스의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CurioOptics™

- ✓ 평균 전력 소모량 저감
- ✓ 대기 전력 최소화 설계

전세계 유일

라이브셀 이미징 전용 센서 및 전장보드

CurioCamera™

CurioBoard™

큐리오시스만의 라이브셀 이미징 핵심기술

- ✓ CurioSystem™ 기술의 핵심 요소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초저전력 설계 성공
- ✓ 랜선(Lan cable) 하나로만 전력과 통신을 해결한 초저전력 구동 세계 최초 실현
- ✓ 2-3주 이상 장기 배양 및 관찰 시에도 시스템과 인큐베이터 온도차이 0.1도 미만
- ✓ 2022년 이후 단 1건의 결로로 인한 반품 및 클레임도 발생하지 않음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술적 특징으로는 샘플 또는 플레이트를 이동시키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또는 광학부가 이동하는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인데, 일반적인 plate-moving 방식은 배양 용기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장기 배양 중 세포에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고, 부유세포나 3D 세포 모델의 경우 위치 변화에 따른 관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Celloger는 시료와 배양 용기를 고정된 상태에서 광학부가 이동하며 이미지를 획득하는 optics-moving 구조를 적용**했고, 이를 통해 세포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을 줄이고, 부유세포나 오가노이드와 같이 구조적 안정성이 중요한 샘플도 **보다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는 이러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광학, 전장, 소프트웨어 기술을 내재화했으며, CurioOptics, CurioBoard, CurioLogics 등 자체 기술 플랫폼을 Celloger 제품군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Optics-moving을 활용하여 세포 스트레스 축소 및 면역세포/부유세포 안정적으로 관찰 가능

플레이트 이송방식 (Plate-moving type)

전통적 방식

Oscillating Camera fixed

- 플레이트 흔들림 (Oscillating)
: 시료가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음

광학계 이송방식 (Optics-moving type)

큐리오시스의 Celloger® 시리즈

Stationary OpticsMoving

- ✓ 플레이트 고정 (Stationary)
: 시료가 흔들리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음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elloger 제품군은 단일 장비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처리량에 따라 여러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라인업에는 Celloger Pro, Celloger Stack, Celloger Mini Plus, Celloger M26, Celloger M22, Celloger Nano 등이 포함된다. 소형 연구실용 모델부터 다중 플레이트 및 대량 배양 모니터링에 적합한 모델까지 제품군을 확장해, 일반 세포배양 연구 뿐 아니라 세포치료제 생산 공정, 신약개발 스크리닝, 진단 및 바이오의약품 연구 등 다양한 실험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적용 영역은 세포 기반 연구 전반에 걸쳐 있고, Celloger는 세포 증식을 확인, morphology 변화 관찰, 세포독성 평가, wound healing assay, 공동배양, transfection, stem cell 연구, organoid 및 spheroid 형성 관찰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징이 필요한 실험에 활용된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는 약물 처리 이후 시간에 따른 세포 반응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elloger는 이러한 time-lapse 기반 정량 관찰을 자동화하는 장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세포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서는 세포 상태를 배양 중간에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Celloger는 세포 배양 공정의 모니터링 장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처럼 Celloger는 기존의 간헐적 및 수작업 세포 관찰 방식을 자동화하고, 세포 배양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기 및 연속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이다. 저전력 및 저발열 기반의 인큐베이터 내부 구동, 샘플을 움직이지 않는 optics-moving 구조, time-lapse 이미징 및 다중 샘플 관찰 기능이 제품의 핵심 요소다. 이를 통해 Celloger는 세포배양 연구, 신약개발, 세포치료제 생산 공정, 3D 세포 모델 연구 등에서 세포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기 위한 Lab Automation 장비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2. CPX: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공정에 적용되는 자동 Colony Picking 시스템

CPX는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공정에서 colony 선별, picking, plate transfer 과정을 자동화해 고속&고정밀 처리를 구현하는 동사의 자동 Colony Picking 시스템

CPX는 동사의 자동 Colony Picking 시스템으로, 배지 위에 형성된 미생물 또는 세포 colony 중 목표 colony를 선별해 새로운 plate나 well로 옮기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장비다. Colony picking은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미생물 스크리닝, 균주 개량, 라이브러리 구축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핵심 실험 단계인데, 기존에는 연구자가 육안으로 colony를 확인한 뒤 수작업으로 picking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바이오파운드리와 같이 수백~수천 개 이상의 colony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처리량, 재현성, 오류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CPX는 이러한 colony imaging, colony detection, colony picking, destination plate transfer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반복 실험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장비군이다.

CPX: 배양된 미생물 콜로니를 자동으로 분석 및 선택하고 다른 배지로 옮기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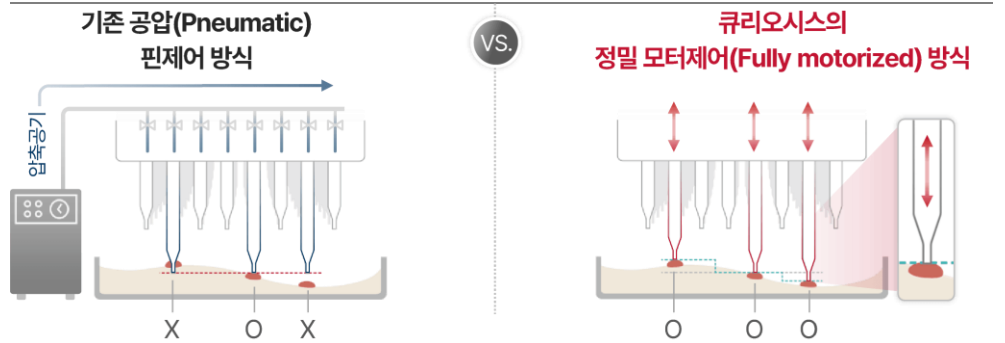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PX의 기본 workflow는 배양된 colony를 이미지화한 뒤, colony의 위치와 크기 등을 기반으로 목표 colony를 선별하고, picking pin을 이용해 선택된 colony를 목적 plate로 옮기는 구조다. 제품의 **핵심 기술은 fully motorized 96-**

pin picking head와 개별 pin 제어 방식에 있는데, 기존 일부 colony picker는 pneumatic 방식 또는 고정 stroke 방식으로 pin을 구동하는데, 이 경우 모든 pin이 동일한 깊이와 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colony 위치, colony 크기, agar 표면 상태의 미세한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CPX는 각 picking pin을 전동식으로 개별 제어해 colony의 위치와 깊이에 맞춰 picking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colony picking 과정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개 스펙 기준 99% 이상의 정확도와 시간당 3,490개 colony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CPX, 완전 전동식 핀 제어 방식 적용 고정밀(99% 이상 정확도), 고속 (3,490 colonies/hr) 클로니 피킹 시스템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PX의 주요 적용 분야는 미생물 기반 합성생물학, 균주 개량, 단백질 생산 균주 선별, 대사공학, 바이오파우드리, 유전자 클로닝 및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등이다. 특히 바이오파우드리에서는 Design-Build-Test-Learn cycle을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olony picking 자동화는 실험 처리량 확대와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위한 필수 장비인 프라로 볼 수 있다. 동사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Revvity Biomed(상하이)**와 **지난 1월 바이오파우드리용 colony picker 중국향 ODM 계약을 체결**을 했고, CPX는 동사의 랩오토메이션 포트폴리오 내에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우드리 자동화 영역에 대응하는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3. Cellpuri: 원심분리 없는 세포 농축 및 분리용 미세유체칩 시스템

Cellpuri는 원심분리 없이 미세유체칩 기반으로 세포를 농축 및 분리하는 자동화 제품으로, 세포치료제 생산 공정의 물리적 부담과 작업자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크지만 본격 매출화까지는 추가 개발과 시간이 필요한 제품

Cellpuri는 동사의 세포 농축 및 분리 자동화 제품으로, 원심분리 없이 세포를 농축할 수 있는 disposable microfluidic chip 기반 시스템이다. 세포 기반 실험과 세포치료제 생산 공정에서는 배지 제거, 특정 세포군 농축, 혈액 성분 분리, 세포 세척 및 buffer exchange 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데, 기존에는 주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세포를 침전시키고 상층액을 제거하는 방식이 사용됐으나, 이 과정은 세포에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세포 손실, 오염, 작업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Cellpuri는 이러한 원심분리 기반 workflow를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세포 현탁액이 미세유체칩 내부 채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유체 흐름을 이용해 waste medium을 분리하고, 농축된 세포를 outlet으로 모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필터 막이나 원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채널 구조와 유체역학적 현상을 활용해 세포와 배지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공개된 동사의 Cellpuri 성능 기준으로는 2분 내 20배 수준의 cell enrichment, 약 95% cell recovery, 원심분리 없는 자동 농축 공정이 핵심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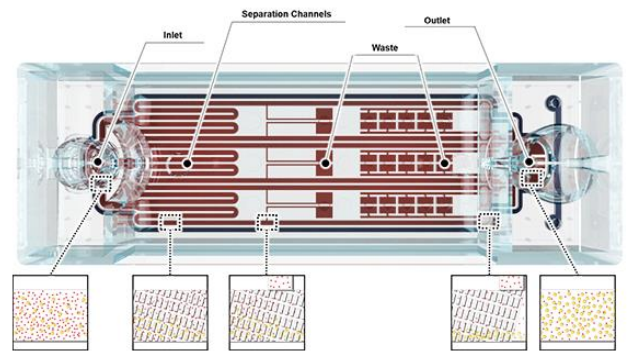
Cellpuri의 기반 기술은 동사의 **Filterless Filter 기술**인데, 이는 미세유체칩을 활용해 혈액, 세포배양액 등에서 원하는 성분을 필터 없이 분리 및 농축하는 기술로, 간단한 펌프 구동만으로 15~30배 수준의 세포 농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영역은 세포 배양액 전처리, 면역세포 배양 전처리,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 및 생산 공정, 혈액 성분 분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세포치료제 생산에서는 세포 생존율, 회수율, 무균성, 공정 재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Cellpuri는 기존 원심분리 공정의 물리적 부담과 작업자 개입을 줄이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연구와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한 제품으로 동사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핵심 제품으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나,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제품이다.

Cellpuri 이미지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ellpuri, Filterless Filter (FLF) Technology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MSP는 병리 슬라이드를 대량&고속으로 스캔해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고, 저장, 판독, 공유, 분석까지 지원하는 동사의 디지털 병리 자동화 제품군

4. MSP: 병리 슬라이드 디지털화를 위한 자동 디지털 병리 스캐너

MSP는 동사의 디지털 병리 사업으로, 주력 제품인 MSP-320은 유리 슬라이드에 제작된 조직 또는 세포 병리 샘플을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자동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다. 기존 병리 workflow는 병리의사가 현미경으로 유리 슬라이드를 직접 관찰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슬라이드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스캔해 저장, 판독, 공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MSP는 이러한 병리 슬라이드의 디지털 전환을 자동화하는 장비군으로 볼 수 있다.

MSP-320은 한 번에 최대 320장의 슬라이드를 자동 로딩하고 연속 스캔할 수 있는 fully automated digital slide scanner로, 공개된 스펙 기준으로 20개 tray에 각 16장씩, 총 320장의 슬라이드를 적재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당 약 14~15초 수준의 고속 스캔과 일일 최대 960장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해상도는 0.19µm/pixel급이며, real-time laser autofocus, advanced image stitching, 고해상도 광학 시스템, pre-scan module, 이미지 및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탑재하고 있다. 스캔된 이미지는 저장, archiving, viewer 기반 확대 관찰, 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 병리 workflow로 연결된다. 적용 영역은 병원 병리과, 원격 병리진단, AI 병리 분석, 임상시험 검체 관리, 제약사 및 CRO 연구 등이 있고, 인허가 및 인증 측면에서는 2023년 자동 디지털 병리 스캐너 의요기기 품목허가 및 제조허가를 획득했다.

MSP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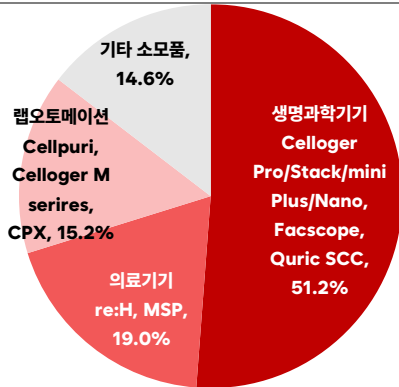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 번의 클릭으로 320개의 슬라이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M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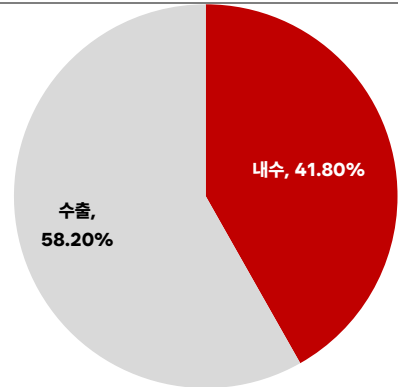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품목 매출 비중 (2025)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내수/수출 매출 비중 (2025)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 회사

2025년 말 기준 큐리오시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Cytoneer Inc.(미국)과 위위트이며, 두 회사 모두 100%의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이다. 위위트(자산 규모: 538,260원)는 동사의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품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ytoneer(자산 규모: 446,896,938원)는 북미 영업법인으로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속 회사(20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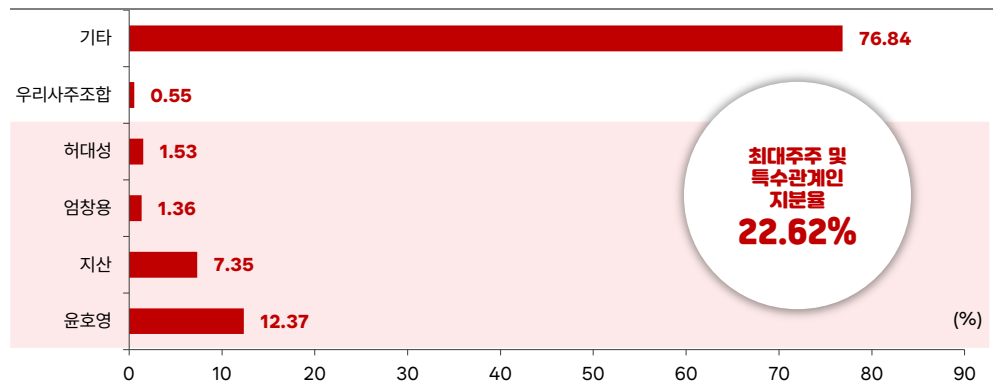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2025년 말 기준 큐리오시스의 최대주주는 윤호영 대표이사로, 총 942,040주를 보유하여 12.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산은 559,790주를 보유해 7.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등기임원 엄창용(1.36%), 허대성(1.53%)의 지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주식 수는 1,722,490주로 전체 주식 수의 22.62%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지분은 상장 이후 최대 36개월 간 보호예수로 지정되어 매도가 금지된 상태이다. 우리사주는 42,000주로 전체 주식 수의 0.55%에 해당하며, 자사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주 구성(2025.12.31)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큐리오시스 보호예수 해제 일정

(단위: 주, %)

반환예정일	보호예수물량(주)	총발행주식수 대비 비율(%)
2026.11.13	742,586	9.7
2028.11.13	2,111,945	27.7

주: 총발행주식수 7,616,482주, 2025.12.31 기준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Lab Automation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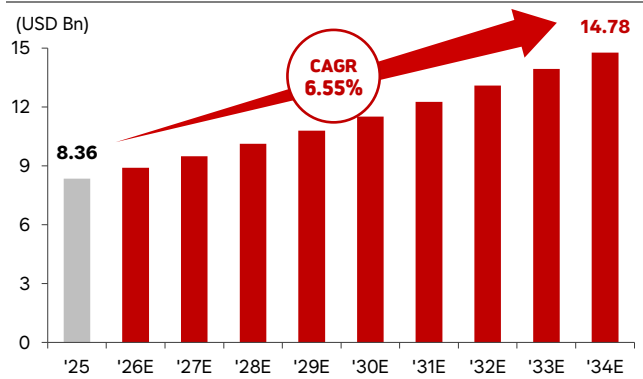
랩오토메이션 산업은 바이오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부족, 실험 효율 향상 등의 다양한 니즈가 맞물려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랩오토메이션은 생명공학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인데, 랩오토메이션은 실험실 내의 실험 및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반복 작업을 줄여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휴먼에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차세대 기술이다. 현대 실험실 환경에서는 수동 개입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workflow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보조적인 수단에서 나아가 End-to-End 자동화 솔루션으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랩오토메이션 시장 규모는 2025년 84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약 1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6.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랩오토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연구개발 전문인력 부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품질관리 QC(Quality Control) 고도화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약개발, 세포치료제, 합성생물학, 오가노이드 등의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대용량 실험 및 정밀 데이터 확보, 품질 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실험 환경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실험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재현성 문제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때 랩오토메이션의 자동화 시스템은 프로토콜의 일관된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된 데이터 품질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실험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심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동물실험 금지법이 확산됨에 따라 오가노이드 등의 대체 실험법이 채택되고 있는데, 대용량 데이터 스크리닝과 오가노이드 품질 관리의 어려움 또한 랩오토메이션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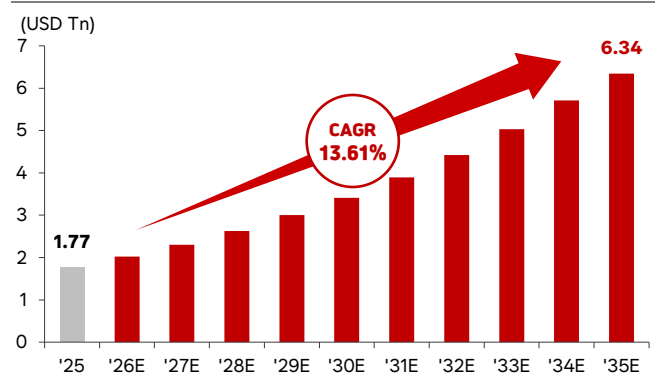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 심화, 신규 모달리티 등장으로 인한 연구분야 확장 등의 요소들이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 규모의 성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검사 및 임상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실험 진행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해 실험실은 점차 수작업에서 벗어나 자동화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 규모는 2025년 1.8조 달러에서 2035년 6.3조 달러까지 연평균 13.61%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승 사이클에 있다. 이러한 흐름 하에서, 랩오토메이션은 생명공학 시장규모의 성장과 패러다임 변화의 과도기에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랩오토메이션 시장 규모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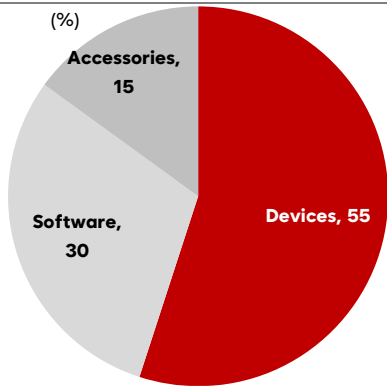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 규모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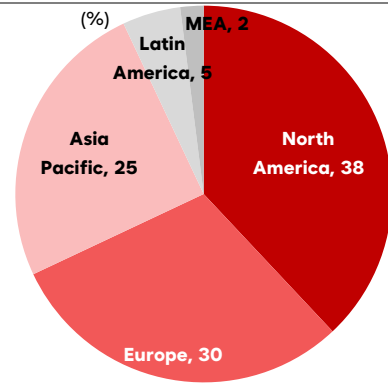
랩오토메이션 시장은 크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실험실 workflow의 물리적 기반인 디바이스가 전체 시장의 약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기에는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자동화 액체 취급 시스템, 로봇 팔, 플레이트 판독기, 표본 처리기 등의 제품이 포함된다. 그 외 소프트웨어는 30%, 액세서리는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비중은 북미 38%, 유럽 30%로 선진국 그룹이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데, 바이오 투자 규모에 비례해 실험실 자동화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25%이며, 일본과 중국의 바이오 투자가 가파른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추세이다.

랩오토메이션 시장 내 품목별 비중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랩오토메이션 시장규모 지역별 비중(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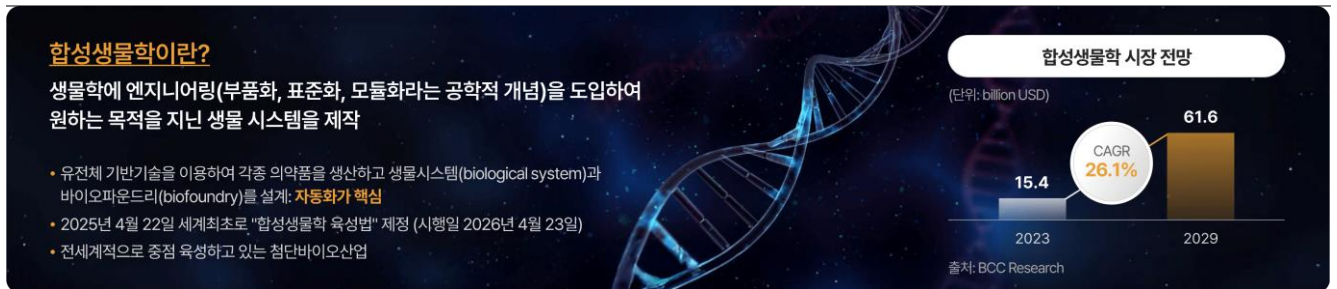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재 랩오토메이션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표 제품으로는 Thermo Fisher(미국)의 약물 탐색 효율을 높이는 분석장비 'iCAP PRO', Danaher(미국)의 유전체 연구용 액체 처리 시스템, Molecular Devices(미국)의 콜로니 피커 'QPix' 등이 있으며, 라이브셀 이미징 분야에서는 Sartorius(독일)의 'Incucyte', Etaluma(미국)의 'Lumascopie', Nikon(일본)의 'A1R', 큐리오시스의 'Celloger' 등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전문인력 부족과 품질 관리 등의 요인으로 실험실 자동화를 선택하는 바이오텍이 증가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Thermo Fisher, Danaher 등 글로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큐리오시스 등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자적인 부품 및 제조 기술력을 내재화하며 경제적인 가격을 앞세워 일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노력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 4월 23일 시행된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대표적이다.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실험실 자동화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이를 국가 전략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확보 및 인력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랩오토메이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국산화 흐름과 제도적 지원이 맞물리며 실험실 자동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도입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 환경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정부의 세계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사업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편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 전문 인력 교육 부담,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시 보안 우려 등은 여전히 주요 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랩오토메이션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실험실 현장에서의 실사용 데이터와 고객 레퍼런스 축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연구 workflow 전반을 자동화 및 표준화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으로 산업 구조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포인트

Celloger, 제품군 확장과 글로벌 사용자 검증으로 확인되는 핵심 성장축

Celloger는 인큐베이터 내부 장기 관찰이라는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와 Nano, Pro, Stack, M series로 이어지는 제품군 확장, 글로벌 사용자 기반 검증을 바탕으로 동사의 가장 가시성 높은 성장 동력

동사의 첫 투자포인트로 Celloger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유는 단순히 라이브셀 이미징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동사가 **Celloger를 단일 장비가 아닌 제품군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재 Celloger 라인업은 소형 실험실용 Nano 및 Mini Plus, dual fluorescence와 교체형 렌즈를 지원하는 Pro, 다층 배양 용기 모니터링에 특화된 Stack, 2개 배양 용기 동시 관찰이 가능한 M22, 최대 6개 plate를 동시에 이미징할 수 있는 M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 세포 상태 확인부터 다중 well 기반 time-lapse 분석, 대량 세포배양 모니터링, high-throughput 실험까지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대응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군을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일반 연구 장비 수요에 국한하지 않고, 제약사와 바이오텍의 신약개발 스크리닝, 세포치료제 생산공정 모니터링, 3D 세포 모델 연구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Celloger

Automated live cell imaging system

Celloger® Series

- Celloger® Mini Plus**
Celloger® Nano
- Celloger® Stack**
Celloger® Pro
- Celloger® M26**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elloger Series 제품군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또한 Celloger는 제품 경쟁력에 대한 외부 검증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글로벌 실험장비 리뷰 플랫폼 **SelectScience는 2026년 Celloger Series에 Gold Seal of Quality를 부여**했다. Gold Seal은 100개 이상의 리뷰와 평균 4.5점 이상의 평가가 요구되는 인증으로, Celloger는 3D cell model, cancer research, cellular aging 등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연구자 사용 경험에 기반한 **제품 신뢰도 지표**로 볼 수 있다. **장비 산업에서 사용자 리뷰와 레퍼런스는 신규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Celloger가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 내에서 일정 수준의 제품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Celloger, Gold Seal of Quality 획득

Gold Seal of Quality Winner ★★★★★



자료: SelectSci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경쟁 관점에서 Celloger의 포지셔닝은 명확한 편인데, 글로벌 라이브셀 이미징 시장에는 Sartorius(독일)의 Incucyte와 같은 강력한 경쟁 제품이 존재하며, Molecular Devices(미국) 등은 high-content screening 영역에서 높은 처리량과 분석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Celloger를 단순히 글로벌 대형사의 고성능 장비와 정면 경쟁하는 제품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히려 **Celloger의 차별화 포인트로 인큐베이터 내부 구동, 저전력 및 저발열 설계, 시료를 움직이지 않는 optics-moving 구조, 다층 배양 및 multi-vessel 관찰에 특화된 제품** 확장성에서 본다면 경쟁력이 명확하다. 특히 장기 배양, 세포치료제 공정, 오가노이드/spheroid 연구처럼 세포 환경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장비의 절대적 imaging specification 못지않게 세포 스트레스 최소화와 workflow 적합성이 중요한데, Celloger는 이 지점에서 실험실 자동화와 세포배양 공정 자동화 사이의 니치(niche) 영역을 공략하는 제품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ASP(Average Selling Price), 금년도 목표 설치 대수 등 세부 지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제품 라인업의 확장성, 사용자 기반 검증, 글로벌 리뷰 플랫폼에서의 평가, 인큐베이터 내부 장기 관찰이라는 명확한 사용처를 감안하면 Celloger는 동사의 가장 가시성 높은 성장 촉진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글로벌 ODM 본격화로 확인될 실적 성장 가시성

2026년부터 Revvity향 Celloger & CPX MOQ 기반 ODM 매출이 본격 반영되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고부가 장비 중심의 매출 믹스 개선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동사의 두 번째 투자포인트로는 글로벌 ODM 계약 확대를 통한 실적 성장 가시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사는 Celloger, CPX, Cellpuri, MSP 등 다양한 랩오토메이션 장비를 자체 개발해왔고, 상장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품 기술력도 있겠지만, 사실 해당 기술이 실제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 관점에서 2026년은 동사의 ODM 사업이 더 가시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Revvity와의 ODM 계약이 단순한 공동개발 또는 MOU 수준이 아니라 MOQ(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 기반의 공급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동사의 실적 가시성을 어느정도 보장해준다.**

상업화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확인되는 신규 사례는 Revvity와의 CPX ODM 계약인데, 동사는 **2026년 1월 Revvity와 바이오파운드리용 콜로니피커 시스템에 대한 ODM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주문수량 MOQ 기반으로 체결되었으며, 실제 매출 인식은 PO(Purchase Order)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기 확정 물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 판매 대리점 계약 대비 실적 하방 가시성이 높다. 또한 해당 장비는 Revvity의 브랜드명으로 출시되지만, 핵심 엔진과 기술 설계는 동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는 동사가 글로벌 고객사의 연구 및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ODM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레퍼런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Celloger 역시 ODM 확대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인데, 2025년 6월 Revvity사와 중국 지역 ODM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중국 외 유럽, 미국, GGM 지역으로 공급 지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Celloger ODM 판매대수 MOQ 전망은 2025년 20대에서 2026년 30대, 2027년 40대로 확대되는 구조이고, 따라서 2026년부터는 기존 자사 브랜드 Celloger 판매에 더해 글로벌 파트너향 ODM 물량이 실적 성장의 추가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Celloger는 이미 동사의 대표 제품으로 글로벌 연구기관 및 바이오 기업향 판매 레퍼런스를 축적해온 제품군이기 때문에, ODM으로 확대가 될과 동시에 추가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Celloger M26 & CPX Revvity사와 ODM 출시

P사와 공동 프로모션 협약	글로벌 R사와 신제품 공급을 위한 포괄적 전략적 제휴 체결
<p>글로벌 TOP 인큐베이터 제조사인 P사와 공동 프로모션 협약 체결 P사의 GMP용 인큐베이터에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필요시 당사 제품을 사용 자동 멸균 시스템이 탑재된 GMP인큐베이터 환경에서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제품</p>  <p>→ 현재 업계 유일의 GMP compliance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인 Celloger® Series</p>	<p>글로벌 대형 바이오텍 회사와 전략적 제휴 체결-신제품 공급 협력 기존 라인업 강화 및 신제품 라인업 확장에 매우 적극적 (시가총액 125억달러 규모, 미국 NYSE 상장사, S&P500)</p>  <p>→ 2025년 6월: Celloger® M26 ODM 출시 → 2025년 8월: 콜로니파커(CPX™) ODM 출시</p>

자료: 큐리오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또한 ODM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매출처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생명과학 장비 시장은 Thermo Fisher(미국), Sartorius(독일), Revvity(미국), Molecular Devices(미국) 등 대형 기업들이 강한 유통망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장비 개발 측면에서는 광학, 기구, 전장, 소프트웨어, 소모품 설계 등 다양한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 때문에 대형 기업 입장에서 모든 제품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특정 공정에 특화된 기술 기업과 ODM 협업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하고, 동사는 광학, 기구, 전장, 소프트웨어 등 랩오토메이션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어 고객사가 요구하는 장비를 비교적 빠르게 개발 및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CPX뿐 아니라 Celloger의 다른 series, Cellpuri, MSP 등 **다른 제품군에서도 신규 파트너십 또는 기존 파트너와의 추가 ODM 계약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ODM 확장은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글로벌 파트너향 ODM 물량은 직접 판매 대비 ASP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고부가 장비 중심으로 OPM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Celloger 및 CPX의 MOQ 기반 공급 물량이 더 확대 및 신규로 반영되고, 기존 파트너향 지역 확대 또는 신규 ODM 계약이 추가될 경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ODM 계약은 초기에는 고객사 검증과 납품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하지만, 일정 물량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반복 생산에 따른 원가 효율화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확인될 Celloger 및 CPX ODM 매출은 단순한 신규 매출 발생을 넘어, 동사의 실적 개선과 이익률 회복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동사는 2026년부터 실제 MOQ 기반 공급계약이 매출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기존 파트너와의 지역 확대, CPX 및 Celloger M26 외 제품군의 추가 ODM, 신규 글로벌 파트너 확보 가능성이 더해질 경우 실적 추정치의 상단도 열려 있다. 아직 PO 수령 시점, 제품별 마진, 지역별 확장 속도 등은 확인이 필요한 변수이나, 2026년은 동사가 기술 기반 장비 기업에서 full year로 글로벌 ODM 매출을 보유한 랩오토메이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ODM 매출 신규 발생, 기존 사업부 실적 호조로 외형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로 적자 폭은 소폭 확대

2025년 큐리오시스는 상장 전부터 이어온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며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매출은 73억원 (+34.9% YoY)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존 사업부의 안정적인 성장과 ODM 신규 매출 발생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는 Celloger ODM 물량 공급이 개시되며 랩오토메이션 매출액이 10억원을 기록했고, 의료기기(미용 의료기기, MSP) 및 기타 상품(소모품)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억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뒷받쳤다. 특히 당사는 당해부터 중국 Revvity향 Celloger ODM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GGM, 유럽, 미국으로 공급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 11월 상장 당시 연간 매출액 목표를 1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연말 공급 예정이었던 GGM Revvity향 공급이 지연되며 실제 매출액과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손실은 7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전년(62억원) 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당사는 ODM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 지출을 확대하였는데, 연간 경상연구개발비가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가한 점이 영업적자 확대의 주 요인으로 파악된다. **지배주주 손실은 79억원으로 전년(48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24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의 역기저 효과이다. 이러한 파생상품평가손익 효과를 제거한 2024년 손실은 77억원으로, 실질적인 적자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실적 전망

Celloger 라인업 확장 및 ODM 매출 반영으로 턴어라운드를 위한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2026년 1분기 당사는 매출액 11억원(-25.5% YoY), 영업손실 16억원(전년 약 18억)을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이는 구조적인 성장성 둔화라기보다는 매출 인식 시점 차이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약 20억원 규모의 국내 주주 매출이 3월에서 4월로 이연되면서 1분기 매출이 낮게 인식되었다. 하지만 해당 물량이 2분기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만큼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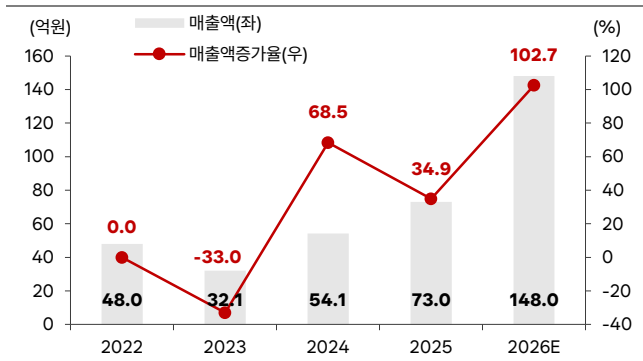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 당사는 **매출액 148억원(+102.7% YoY)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장 요인은 Celloger 라인업 확대와 ODM 매출의 온기 반영이다. 특히 Celloger M series와 CPX의 Revvity 중국향 MOQ 물량 공급이 본격화되며 ODM 매출이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사는 지난 4월 신제품 Celloger Stack을 공개했으며, 메디포스트와의 MOU를 기반으로 세포배양 및 세포치료제 생산공정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면서 생명과학기기 부문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Revvity 외 유럽 대형 글로벌 기업과의 ODM 공급계약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계약이 연내 체결될 경우 2026년 실적 추정치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망치에는 보수적 접근을 위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규 ODM 계약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재 기획정된 ODM 공급계약 및 기존 제품 판매 흐름만을 기반으로 추정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개선이 예상되는데, **2026년 영업손실은 38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75억원) 대비 적자 폭이 유의미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ODM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ODM 사업은 자체 브랜드 판매 대비 글로벌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하면서도 고부가 장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매출총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매출총이익은 80억원(GPM 54.1%)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GPM(47.7%) 대비 큰 폭의 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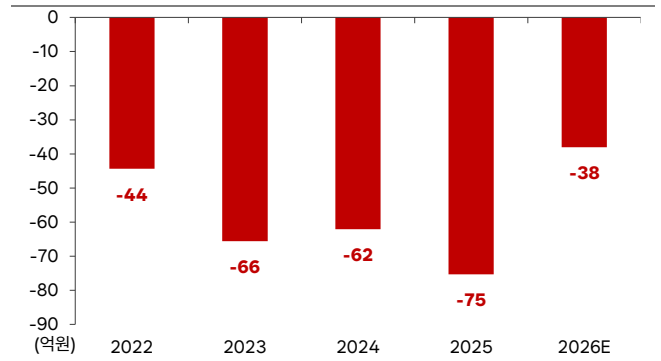
이처럼 2026년은 동사가 글로벌 ODM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확인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결되어 **연간 지배주주 순손실은 36억원으로 적자 규모를 축소**하며 턴어라운드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2	54	73	148
증가율 (%)	-33.0	68.5	34.9	102.7
생명과학기기	25	39	35	48
랩오토메이션	0	0	10	69
의료기기	2	6	13	14
상품 등	0	1	10	11
연결조정	5	7	5	6
판매관리비	74	84	110	118
판매관리비(%)	231	155	151	79.7
영업이익	-66	-62	-75	-38
영업이익률 (%)	-204	-114.6	-103.1	-25.7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계속사업이익	-100	-48	-79	-36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100	-48	-79	-36
순이익률 (%)	-310.4	-89.0	-107.7	-24.2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99	-48	-79	-36

주: 생명과학기기: Celloger Pro/Stack/mini Plus/Nano, Facscope, Quiric SCC, 의료기기: reH, MSP, 랩오토메이션: Cellpuri, Celloger M series, CPX, 상품: 소모품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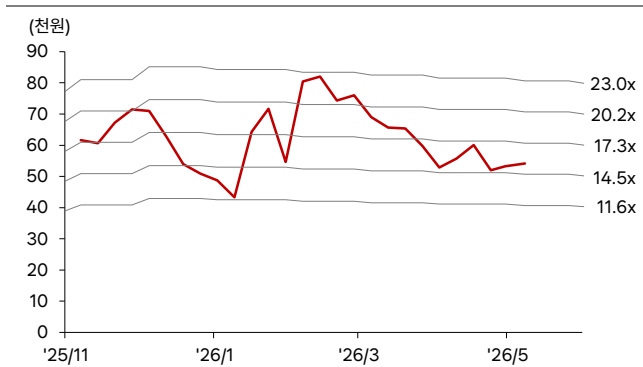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장 초기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2026년 실적 성장성과 ODM 매출 가시성을 재평가하는 구간으로, 향후 매출 성장, 적자 축소, 신규 파트너 확대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기업가치 상향 여지 존재

동사의 2026년 예상 실적을 기반한 밸류에이션은 **PBR 15.7배, PSR 26.0배**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동사는 아직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PER 기반의 밸류에이션 적용은 제한적이며, 현 단계에서는 매출 성장성과 자본 대비 기업가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PSR과 PBR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해보고자 한다. 다만 동사는 2025년 11월 상장 이후 거래 기간이 길지 않아, 상장 이후 형성된 PBR 및 PSR 밴드를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장 초기에는 신규 상장 프리미엄, 제한적인 유통물량, 랩오토메이션 플랫폼 ODM 계약 가능성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며 멀티플이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글로벌 생명과학 장비 및 랩오토메이션 관련 기업인 Thermo Fisher, Danaher, Sartorius 등의 2026년 기준 PBR은 대체로 2~5배, PSR은 3~6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 동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장 후 현재까지의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면 PBR은 11.6~57.4배, 평균 30.6배, PSR은 31.6~64.3배, 평균 46.1배 수준이었는데, 2026년 예상 PBR 15.7배와 PSR 26.0배는 모두 과거 밴드 평균을 하회하며, 특히 PSR은 밴드 하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장 이후 역사적 평균 대비 부담이 낮아진 구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2026년 매출액이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7% 증가한다는 실적 추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동시에 상장 직후 형성됐던 기대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밴드 대비 저평가로 판단하기 보다는, 상장 초기 고멀티플 구간이 조정된 이후 2026년 실적 성장성을 기준으로 적정 밸류에이션을 다시 확인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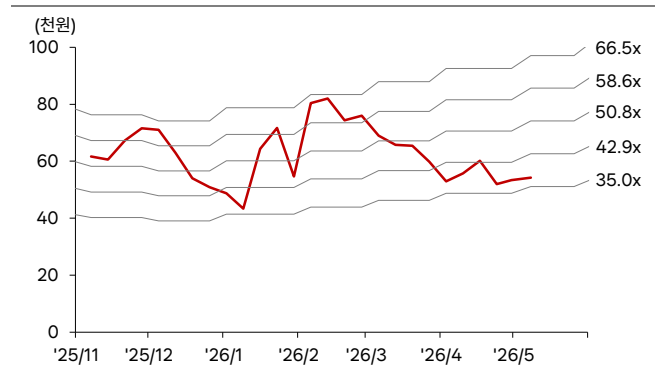
동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장 직후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2026년 실적 성장성을 재평가하는 구간으로 보인다. 과거 밴드 대비 PBR과 PSR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해당 밴드가 상장 초기의 짧은 기간에 형성된 지표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기업가치의 추가 상향 여부는 2026년 예상 매출 달성, 영업손실 축소, Rewity향 ODM 매출화, 신규 파트너 및 제품군별 ODM 확장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모멘텀이 순차적으로 확인된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성장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으며 기업가치 상향 여지도 열려 있어 보인다.

큐리오시스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큐리오시스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동사의 리스크는 Revvity 중심의 ODM 매출 의존도와 CAPA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

동사는 Celloger, CPX, Cellpuri, MSP 등 랩오토메이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형 ODM 계약을 통해 상업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Revvity와의 협업은 동사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글로벌 생과학 장비 밸류체인 내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레퍼런스다. 다만 현재 특정 고객사 및 특정 ODM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동사의 주요 리스크는 글로벌 ODM 매출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객사 집중도와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는 Revvity향 ODM 매출 의존도 확대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인데, 동사는 Revvity와 콜로니퍼커 시스템 CPX 및 라이브셀 이미징 시스템 Celloger M26에 대한 ODM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는 동사 제품이 글로벌 파트너사의 브랜드와 유통망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ODM 사업 특성상 분기별 매출 인식 시점과 규모는 파트너사의 발주 일정, 지역별 출시 계획, 영업 전략, 재고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의 PO 발행 지연, 지역별 출시 일정 변경, 제품 교육 및 마케팅 시간 소요, 최종 고객 수요 부진, 판매 인센티브 구조 변경 등은 단기 실적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상장 초기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의 발주 변화가 전사 매출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CPX 및 Celloger ODM의 실제 PO 수령 속도, 분기별 매출 인식 규모, 지역 확장 여부, Revvity 외 신규 고객사 확보 속도를 동사의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로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능성이 있는데, 동사는 글로벌 ODM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공장 증설을 진행했으며, 2026년 2월 준공을 통해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내년 2분기 까지 제조라인을 15개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대 계약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이는 ODM 계약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납기 대응력과 고객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장비 제조업은 생산설비, 품질관리 인력, 재고 확보 등 선투자가 필요한 구조인데, 수주가 계획대로 증가하면 고정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ODM 발주가 지연되거나 신규 파트너 확보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가 매출 증가보다 먼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증설 이후 실제 가동률, 신규 설비의 매출 기여도, 고정비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주잔고 및 PO 확보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는 동사가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동반되는 실행 리스크로 볼 수 있고, Revvity향 ODM 계약과 P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은 글로벌 장비 시장 내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생산능력 확대 역시 향후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라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고객사 집중도와 설비 가동률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신규 파트너 확보와 제품군별 ODM 확장이 실제 매출 다변화로 이어질 경우 해당 리스크 요인들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48	32	54	73	148
증가율(%)	N/A	-33.0	68.5	34.9	102.7
매출원가	31	23	32	38	68
매출원가율(%)	64.6	71.9	59.3	52.1	45.9
매출총이익	16	9	22	35	80
매출이익률(%)	34.4	27.0	40.9	47.7	54.1
판매관리비	61	74	84	110	118
판매비율(%)	127.1	231.3	155.6	150.7	79.7
EBITDA	-38	-56	-52	-66	-25
EBITDA 이익률(%)	-79.0	-175.3	-95.5	-89.8	-17.1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44	-66	-62	-75	-38
영업이익률(%)	-92.5	-204.0	-114.6	-103.1	-25.7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26	-34	14	-3	2
금융수익	1	2	36	2	3
금융비용	28	37	22	3	3
기타영업외손익	1	0	0	-2	2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71	-100	-48	-79	-36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71	-100	-48	-79	-3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1	-100	-48	-79	-36
당기순이익률(%)	-147.5	-310.4	-89.0	-107.7	-24.2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9	-99	-48	-79	-36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1	-60	-48	-73	-23
당기순이익	-71	-100	-48	-79	-36
유형자산 상각비	6	9	10	9	12
무형자산 상각비	0	1	1	1	1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8	-9	-5	-22	-2
기타	32	39	-6	18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	-5	-4	-23	-3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0	0	0	-1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	-5	-4	-22	-25
기타	-1	0	0	-1	-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6	66	132	241	-3
차입금의 증가(감소)	9	3	-0	-10	-1
사채의증가(감소)	0	4	110	0	0
자본의 증가	0	28	29	258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27	31	-7	-7	-2
기타현금흐름	-0	-0	0	-0	25
현금의증가(감소)	-7	1	80	145	-31
기초현금	18	11	13	92	238
기말현금	11	13	92	238	207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34	47	129	285	272
현금성자산	11	13	92	238	207
단기투자자산	1	4	3	4	9
매출채권	3	6	7	10	15
재고자산	14	20	22	26	33
기타유동자산	4	5	5	7	8
비유동자산	41	41	45	57	45
유형자산	31	32	35	51	39
무형자산	2	2	2	2	2
투자자산	4	2	2	1	1
기타비유동자산	4	5	6	3	3
자산총계	75	88	174	342	317
유동부채	256	255	52	32	40
단기차입금	10	28	27	23	20
매입채무	2	1	5	1	1
기타유동부채	244	226	20	8	19
비유동부채	13	26	25	28	31
사채	4	6	1	6	6
장기차입금	0	6	6	0	0
기타비유동부채	9	14	18	22	25
부채총계	269	281	77	60	70
지배주주지분	-191	-193	97	282	246
자본금	1	2	3	38	38
자본잉여금	6	108	446	673	673
자본조정 등	4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203	-303	-351	-429	-465
자본총계	-194	-193	97	282	24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N/A	N/A	0.0	13.2	15.7
P/S(배)	0.0	0.0	0.0	43.9	26.0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2,664	-3,542	-1,287	-1,201	-470
BPS(원)	-7,229	-5,356	1,533	3,703	3,232
SPS(원)	1,846	1,154	1,447	1,115	1,943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36.3	51.4	100.5	-41.5	-13.6
ROA	-94.9	-122.7	-36.8	-30.5	-10.9
ROIC	N/A	-129.5	-109.3	-102.2	-44.5
안정성(%)					
유동비율	13.1	18.3	248.2	880.2	684.5
부채비율	-138.4	-145.7	78.9	21.4	28.6
순차입금비율	-123.8	-125.9	-49.0	-74.4	-74.9
이자보상배율	-4.6	-4.6	-4.0	-29.5	-19.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4	0.4	0.3	0.4
매출채권회전율	14.5	7.2	8.8	8.8	11.9
재고자산회전율	3.3	1.9	2.6	3.0	5.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큐리오시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5.18	큐리오시스 - 랩오토메이션, 그게 돈이 됩니까?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